



성균 인성 에세이 공모전 우수작

대 상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

후지사키 코진(藤崎康仁) | 글로벌경제학과

작년 크리스마스이브, 유럽 알바니아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다 우연히 만난 한 가족으로부터 듣게 된 말이다. 사실 이런 격려의 한 마디는 모금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흔한 말이지만 모두가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이브 추운 저녁, 그 가족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을 떠올리면 지금도 내 눈시울은 뜨거워진다.

내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된 곳은 콜차(알바니아어로는 Korçë)라는 지역의 시골 마을로, 하루에 버스가 4번 밖에 안 오는 외진 곳이었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웅장한 설산의 모습과 새하얀 눈으로 뒤 덮인 드넓은 밭의 풍경이 조화를 이루며 제법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알바니아인 동료와 함께 모금함을 들고 그 지역의 가정을 집집마다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서 쉬지도 않고 뛰면서 모금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집을 방문했지만 모금함은 무심하게도 빈 깡통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디 그 뿐이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도둑놈, 사기꾼 소리를 듣고, 거대한 2층집에 멋진 차를 가졌으면서 자신이 불우이웃이니 그 모은 돈을 내게 달라며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우리의 마음 또한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우연히 집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조그맣고 허름한 집을 지나게 되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 없는 지부터 의심이 되는 집이었지만 마침 집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다가갔다. 사실 그 집에는 모금을 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집집마다 찾아가며 모금활동을 했던 것은 그 지역의 불우이웃을 찾기 위한 탐색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집의 가정형편을 조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간 것이었다. 가까이 가보니 아주머니께서는 요리를 하기 위해 식재료를 다듬고 계셨다. 땅에 조그맣게 굴을 파서 그 속에 보관해 두었던 감자, 당근을 꺼내 흙이 묻은 손으로 담담하게 손질하고 계셨다. 나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우리들의 단체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고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마칠 때쯤,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하시던 일을 그대로 두시고 집으로 들어가셨다. 기부를 해달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가버리신 게 아닐까 해서 씩씩히 발걸음을 옮기려 했을 때, 그 조그마한 집 안에서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동생이 나오더니 이어서 아버지와 족히 80세는 되셨을 것 같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아이들을 뒤따라 나오셨다. 그리고 아까 집으로 들어가셨던 밝은 표정의 어머니까지 나오셔서 어느새 다섯 식구가 모두 모여 우리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곤 이어졌던 믿을 수 없는 행동.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꾸깃꾸깃 구겨진 200 lekë 지폐 한 장을 쥐어 주었고 어린 남자아이는 그 돈을 내게 건네었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돈을 건네는 순수하고 올곧은 어린아이의 눈은 내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했다. 그 짧았던 순간, 나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 ‘과연 내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 모금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의 실천을 권유해왔던 내가 과연 이 가족들만큼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돈은 한화로 2천원 남짓 하는 돈이었지만 억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무겁고도 귀중한 가치의 것이었다. 아이의 손에 쥐어진 돈을 선 듯 받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시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지만 받아주세요. 200 lekë예요. 하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날따라 날씨가 추웠던 탓일까, 아니면 다른 날에 비해 모금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날이어서 그랬던 걸까, 나는 지난 1년 간 위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겪었던 일들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트리며 말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옆에 아무 말 없이 서 계셨던 할머니께서는 내게 어디서 왔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물어 보셨고 먼 곳에서 고생이 많다며 나를 안아 주셨다. 낯선 곳에서 찾아온 생전 처음 보는 동양인 남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는 그 가족들을 보며 나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게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과 이 가족들이 다른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의 나는 2500년전 공자의 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 그 의문의 실마리를 찾았다.

번지가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대답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樊遲問仁 子曰 愛人] - 논어 (안연)

그렇다. 알바니아에서 만났던 그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었고 나는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들이 준 것은 2천원 남짓의 돈에 불과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인愛人의 마음은 그 정도의 값어치로는 매길 수 없는 위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들은 어떻게 그런 인자仁者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해 공자는 대답한다.

효도와 공경은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 - 논어 (학이)

사실 ‘당신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라는 말의 의미를 여쭙어

보니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 되면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고 다니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줄 음식이나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이 가족만의 전통이었다. 과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부모가 된 아들과 그의 아내가 이어가고 있으며, 그 마음은 미래의 아이들에게 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지만 위로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면서 아래로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부부는 공자가 말하는 ‘효’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2500년 전 공자가 주창했던 ‘효’의 가치는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의 이 가정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던 것이다. 만약 내가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 과연 나는 이들처럼 가정 안에서는 효를 실천하고, 사회에서는 남을 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까?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나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렇기에 더욱 이 가족과의 만남은 나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게 했다.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던 때에 나는 삶에 대한 별다른 목표가 없었다. 그냥 무작정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달렸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 부럽지 않은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 주변 친구들을 보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 공부를 했다. 정작 어떠한 성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모두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그렇게 친구들과의 경쟁을 통해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고 2년이 지나 수강하게 된 ‘성균 논어’ 수업시간,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성균成均’의 의미에 대해 물으셨다.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걸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그 이름의 의미보다도, 사회에서 인정하는 ‘이름값’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성균의 의미를 알리는 만무했다. 교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말씀 해주셨다.

성균이란 ‘성인재지미취(成人才之未就) 풍속지부제(均風俗之不齊)’의 줄임말로써 인격 완성을 위한 노력과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말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사실 작년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가족들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성균이라는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에게 있어서 성균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이내 떠오른 것은 알바니아에서 만났던 또 다른 가정과의 만남이었다.

언젠가 모금활동을 하며 여러 집을 방문했을 때, 어떤 어린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다. 너무도 어린아이였기에 모금을 부탁할 수는 없어서 부모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곧장 부모님께 달려간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모셔왔고 나는 그분께 따뜻한 선행을 부탁했다. 조금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주머니께서는 지갑에서 1000 lekë (한화 약 10,000원)을 꺼내 기부를 해주셨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들 보다는 더 큰 금액을 기부했기 때문에 잘 된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기부금을 받고 난 뒤에 문이 닫히고 다른 집을 향하려고 했을 때, 문 너머로 들려오는 큰 고함소리.

“왜 문을 열었어! 너 때문에 쓸데 없는 데에 돈을 썼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었던 딸을 타이르는 어머니의 말, 그리고 그럴 거면 돈을 주지 말지 무엇 하러 그렇게 큰 돈을 썼냐며 더 큰 소리를 치는 아버지의 말. 그 날은 많은 돈을 받고도 씩씩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날이었다. 내가 괜한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부모님께 혼이 난 여자아이는 그 날의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그 때의 나는 목표했던 모금함을 채울 수 있었기에 성공한 것일까?

이익을 보면 의로운 지를 생각하라 [見利思義] - 논어(헌문)

사실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돈이 필요했던 것이라면 모금을 하러 다닐 시간에 직접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기부를 하면 될 것이었다. 모금활동하면서 사람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길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일 대 일로 만나서 나눔을 실천할 것을 권유하며 모금활동을 했던 것은 그저 돈의 액수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로움을 추구했던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며,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랬던 진정한 성공이자 성균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목표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위해서 무작정 대학에 입학했고 1학년 때의 나는 허무한 삶의 반복 속에서 방황했었다. 그런 나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목적을 주었던 것은 다름아닌 ‘가족’이었다. 방황하던 시절의 나에게 가족들은 타인을 위하는 삶의 가치를 알게 해주었다. 나를 잡아주었던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먼저 나에게서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계신다. 다방면에 뛰어나신 나의 아버지께서는 남들보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곤 하셨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쉽게 인정받지 못하셨다. 어렸을 적에 나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다.

‘한국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과거에 일본이 그만큼 한국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빠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 한국을 원망하지 마라.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한국을 사랑하도록 해라. 원망을 한다면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원망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 내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만을 위하는 마음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주신 부모님을 나는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리고 나에게는 감사하게도 다운증후군을 지닌 남동생이 한 명 있다. 중학생이 되었지만 아직 혼자서 샤워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 항상 잘 시간이 되면 내가 함께 화장실에 가서 동생을 도와주곤 한다. 어느 날은 동생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엄마 아빠는 네게 동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네 동생을 낳았어. 그렇지 만 지금도 네 동생이 아픈걸 보면 엄마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지금의 너희 둘을 보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 해. 고마 워 아들.’

내 인생에 동생은 최고의 선물이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동생의 미소가 최고의 피로회복제 였고, 동생과 함께 지내며 형으로서 동생을 사랑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생은 내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을 주었다.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대답했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問知 子曰 知人] - 논어 / 안연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 모두가 인을 추구하고 효를 실천하는 방법은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를 순 있으나 본질은 같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나는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형제남매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키웠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자, 작년 6월부터 한국에서

4개월, 알바니아에서 8개월 총 1년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에 도전했다. 그리고 콜차의 시골 마을에서 그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족들은 내가 그들을 만나기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 왔는지는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날 내게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주었다.

나는 그 날 할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나서 그제서야 흘러나오는 눈물을 틀어 막고 어린 아이가 내민 돈을 받고자 했다. 이 돈을 받는다면,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이 가족으로부터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우한 환경 속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루의 끼니가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 돈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도 더 힘들어 하고 있을 세상의 그 누군가를 위해 선뜻 자신들을 희생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받는 것이다. 나에게는 그 마음을 이어 받아, 세상에 다시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각오와 함께 나는 두 손으로 그 돈을 건네받았다.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욱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알아왔다.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있으며 나는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매일같이 고민해보고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성균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나는 공자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함께 걷고 싶다. 2500년 전 그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살아나 성균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꿈을 응원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시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사회를 바라본다. 너도나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땀 흘리는 세상을. 그것이 동양에서 찾아온 낯선 남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그 가족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